

# 광주FC, 안방서 인천 제물로 '연패 탈출' 노린다



오늘 상대 전적 우위 인천과 K리그1 5라운드 경기 김진호·가브리엘·이희균 등 앞세워 승리 사냥 나서 이정효 감독 위기 탈출 로테이션·전술에 관심 쏠려

광주FC가 안방에서 연패 탈출을 노린다. 광주는 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1 2024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연패 탈출'이라는 숙제가 걸린 경기다.

지난 31일 홈에서 열린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전반 24분 나온 '루키' 문민서의 페널티킥을 지키지 못한 광주는 1-2 역전패를 당했다. A매치 휴식기에 앞서 치른 포항스틸러스와의 3라운드 0-1 패배에 이어 연패.

4위로 내려앉은 광주는 홈팬들 앞에서 다시 승리를 낚아 선두권에 진입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시즌 광주는 홈에서 인천을 상대로 좋은 기록을 남겼다.

시원한 골퍼레이드로 5-0 대승을 거뒀고, 최근 10경기 전적을 봐도 광주가 5승 3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홈경기에서 강했다. 광주는 2015년 이후 안방에서 인천에 단 한 차례만 패배를 기록했다.

하지만 빠른 역습이 강점인 상대인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연패의 충격을 털어내는 게 급선무다. 이정효 감독은 앞선 대구전 역전패 이후 "실력을 더 키워야 한다. 경기를 하면서 우리 팀과 나랑 과대평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실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 감독부터 수준이 떨어졌다"고 냉담한 자평을 했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게 될 광주는 원백 김진호를 키퍼레이어로 꼽고 있다.

올 시즌 강원에서 이적한 김진호는 새 팀에 완벽하게 적응을 끝내고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는 화려한 개인기와 저돌적인 돌파라는 강점이 있다.

또 다른 '새 얼굴' 가브리엘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가브리엘은 FC서울과의 개막전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힘과 스피드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K리그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한 가브리엘은 강원FC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장식했다.

하지만 상대의 집중 견제가 계속되면서 가브리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희균과 이진희가 가브리엘과 호흡을 맞춰 공격적으로 인천 골대를 겨냥해야 한다.

인천은 앞선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는 등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은 외국인 '공격 듀오' 무고사와 제르소를 앞세워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뒤에는 스리백의 중심인 요니치가 광주 공세를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정효 감독이 가동할 로테이션도 관심사다.

31일 대구를 만났던 광주는 이를 휴식 뒤 인천을 상대한다. 그리고 다시 이를 휴식 뒤 원정길에 올라 1위에 자리하고 있는 김천상무를 상대해야 한다.

이정효 감독이 위기 탈출을 위해 어떤 카드를 선택할 지 팬들의 시선이 벤치에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연패에 빠진 광주FC가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1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지난 31일 대구와의 경기에서 정호연(왼쪽)과 이희균이 공격을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 4개월만에 필드골... 조규성 '득점 1위'

노르셀란전서 11호골 폭발  
소속팀 미트윌란은 2-3 패



덴마크 미트윌란의 조규성. /구단 SNS 캡처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의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조규성이 4개월만에 필드 골맛을 보며 리그 득점 두 자릿수를 채웠다.

조규성은 2일 덴마크 미트윌란의 MCH 아레나에서 열린 노르셀란과의 덴마크 수페르리가 23라운드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후반 36분 팀이 2-3으로 따라붙게 만드는 득점을 올렸다. 경기는 양 팀 추가 득점 없이 끝났다.

조규성은 페널티아크에서 골대 오른쪽 하단 구석을 찌르는 정교한 땅볼 슈팅으로 골맛을 봤다.

이로써 조규성은 무려 4개월 만에 필드골을 터뜨리며 부활의 날갯짓을 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전복 현대를 떠나 미트윌란에 입단한 조규성은 개막 3경기 연속골을 넣는 등 전반기 맹활약을 펼쳤으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을 치르고 돌아온 뒤 맞은 후반기에는 1골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후반기의 2골은 페널티킥으로 넣은 것이었으며 필드골은 지난해 12월 17라운드 비보르전에서 기록한 골이 마지막이었다.

페널티킥마저도 후반기 두 차례나 놓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조규성은 이날 모처럼 스스로 흡족해질 슈팅력을 보여주며 남은 후반기 일정을 기대하게 했다.

조규성은 또 이날 득점으로 리그 누적 득점을 11골로 늘려 득점 랭킹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알렉산데르 린드(실케보르)와 니콜라이 발리스(브린비)가 나란히 10골로 조규성의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선수들, 전국춘계역도대회서 메달 잔치



지난 1일 염다훈이 열린 전국춘계역도경기대회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지연(사진 오른쪽)이 여자일반부 87kg에서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다. <광주시청 역도팀 제공>



### 광주시청 염다훈·이지연, 정광고 이유혜, 광주체중 이다은 3관왕

광주 역도 선수들이 '제72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및 제35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다.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강원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남·여 일반부 염다훈·이지연(이상 광주시청)과 중·고등부 이유혜(정광고), 이다은(광주체중)이 3관왕에 올랐다.

염다훈은 일반부 남자 89kg급에서 인상 160kg 1위, 용상 186kg 1위, 합계 346kg로 1위를 기록했고, 여자 87kg급에서 이지연이 인상 90kg·용상

120kg·합계 210kg의 성적으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은 모두 올해 광주시청 유니폼을 입었다. 광주시청 고광구 감독은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에서 인상예를 예상하고 있다. 머지않아 국제대회에서도 성과를 낼 만큼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고부에서도 메달이 쏟아졌다. 여고부 76kg급에 출전한 정광고 이유혜(2년)가 인상 80kg, 용상 100kg, 합계 180kg의 기록으

로 3관왕을 달성했다.

여중부에서는 81kg급의 광주체중 이다은(3년)이 인상 60kg, 용상 75kg, 합계 135kg에 성공하면서 역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중부 81kg이상급에는 김효민(3년)이 3개의 은메달을 땀, 59kg급 박보민(3년)은 인상과 합계에서 2개의 동메달을 차지했다.

대학부에서는 조선대의 활약이 돋보였다. 남대부 81kg급의 이서진(1년)과 여대부 76kg급 김가연(2년)이 각각 3개의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댓글부대, 씬, 둠: 파트2
- 2관 고질라 X 공: 뉴 엠파이어
- 3관 비키퍼, 오멘: 저주의 시작
- 4관 댓글부대, 씬, 마더스
- 5관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남은 인생 10년
- 6관 파묘, 기동전사 건담 SEED FREEDOM
- 9관 댓글부대
- 7관 싸네커를 파묘
- 8관 싸네커를 파묘, 1980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4월

광주상설공연(4월)

일시 : 2024-04-06(토) ~ 2024-04-28(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